

■ 또 하나의 환경권리 '조망권' 법적 지위는?

판례 부분... 경관·경제성 우선 고려

아침마다 집 앞 베란다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싶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조망권(眺望權·Prospect right)은 법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확립돼 있지 않아, 종종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최근 광주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집 근처에 새로 들어설 다른 아파트가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조망권은 어디까지 보호돼야 하는 것일까?

◇주민들의 조망권 투쟁= '광명주택'은 최근 광주시 동구 운림동 라인광명아파트 옆 부지 600여평에 12층짜리 아파트(광명사민빌) 1개동(19세대)을 짓는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가 라인광명아파트 정문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무등산 쪽으로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10년 전 분양 당시 환경과 조망권을 보고 이곳에 입주했고 회사 측도 그 덕에 많은 이익을 챙겼다"면서 "이제 와서 기존 입주민의 조망권을 위협하는 것은 법 이전에 도덕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광주 3~4건 집단 분쟁 중

주민 216명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7일 동구청에서 '광명주택'과 공청회를 벌였다.

지난해에는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도시공사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에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과 조망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광주 곳곳에서 3~4건의 조망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 판례=최근 법원은 조망권 관련 소송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중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헌법 제17조)를 근거로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하급심 판례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가 서로 얼굴 인식이 가능한 30m 이내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그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광주시 동구 운림동 '광명사민빌' 신축공사 현장. '광명주택'은 이곳에 12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지만, 인근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또 지난 2004년 광주지법은 복구 운암동 주민 35명이 고층아파트를 재건축하고 있는 '롯데건설(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처분 신청소송'에서 아파트 일부 동의 층수를 11층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통념·주변과의 조화 따져

하지만 서울 남부지법은 같은 해 "경관 조망은 일종의 반사적 이익일 뿐이며,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서 조망 침해가 있지 않은 한 조망을 권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조망권에 관한 논쟁은 법조계에서도 아직 분분하다.

◇조망권 보호는 어느 정도까지=법조계나 학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조망이 법적 권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통념에 비해 조망 가치가 있는 경관이 존재할 것 ▲해당 건물의 경제적 가치

가 조망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을 것 ▲조망의 보존·유지가 주위 토지의 이용 상황과 조화를 이룰 것 등이다.

조망을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조망 침해를 당한다면 경제적 가치가 급락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경우는 법적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조망권과 유사한 일조권(日照權·right of light)은 최근 '2~4시간 원칙'으로 보호받고 있다.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동안 햇빛이 들지 않거나,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합쳐 4시간 이하로 햇빛이 들 경우 일조권 침해라고 보는 것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조망권=특정된 위치에서 자연경관·역사유적·문화유산 등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 좁은 의미로는 건물의 창문이나 베란다 등에서 밖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

"도심 텃밭 매입 생태마을 조성"을

광주·전남 녹색연합, 지자체에 제안

최근 광주시가 추진 중인 '생태환경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도심의 텃밭이나 뒷산 등을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 녹색연합'(공동대표 임형철 등 3명)은 27일 광주 북구문화의 집에서 '도시생태마을 만들기 워크숍'을 갖고, 북구 오치동·매곡동·삼각동·일곡동 일대의 텃밭과 뒷산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사 결과 이들 지역의 야산이나 텃밭 등은 생태적인 보존 가치가 있음에도 훼손돼 있으며, 대부분 사유지가 많아 경제적 이해 관계에 따라 매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 삼각동 삼각산의 경우 ▲자귀나무·청미래덩굴 등 20여 종의 식물 ▲애기세굴나무 등 10여 종의 곤충 ▲가재 등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나, 이용객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토

사 유실 등 생태 훼손이 진행 중이다.

'광주·전남 녹색연합' 박필순 녹색사회위원회 간사는 "야산에 '생태다리' 등을 만들어 동·식물의 왕래가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자체가 야산이나 텃밭 등을 매입해 공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일대에서 부지 공동매입과 생태복원 등을 통해 생태마을을 만드는 '물만큼 공동체 사업'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옛 시청 부지에 '경양호' 복원 논란

환경엔 '문화생태도시'에 적합
광주시·동구청 "실효성 없다"

대형마트 건립이 들어설 광주시 동구 계림동 옛 시청 부지에 '경양호(景陽湖)'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광주시는 실효성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광동시장 정철

등 3인) 등 8개 시민단체는 최근 계림동 옛 시청 부지 활용과 관련, 지역감정을 해결하고 '생태문화도시 광주'에 걸맞는 '경양호 복원 계획'을 광주시에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옛 시청 부지의 활용은 광주도시계획의 긴 안목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양호는 60년대 매립 당시 개발의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문화생태도시의 시각에서 복원 가치가 있다"고 주장

했다. 하지만 광주시와 동구청은 "경양호"를 복원하자는 시민단체의 취지는 공감하나, 수 천억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든다"면서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한편 옛 시청 부지에는 6만여 평의 대규모 인공호수인 '경양호'가 자리했다. 그러나 지난 1936년 시가지 조성 계획에 의해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1차 매립된 후, 1960년대 나머지 1만5천여평의 호수도 매립돼 도시 개발과 함께 흔적이 사라졌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해양 투기 쓰레기

15년 전보다 10배 늘어

환경부는 26일 바다에 버려지는 해양폐기물의 양이 15년 전보다 1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양 폐기물은 축산 폐수와 분뇨 등 모두 14종으로, 배출량이 1990년 106만9천t에서 지난해 992만3천t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연합뉴스

생활안내

Table with columns for '교통안내' (Transportation), '상담' (Talk/Chat), and '신고' (Report). It lists various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citizens.

Advertisement for '영화안내' (Movie Guide) featuring 'Happy Time' and other entertainment options.

Advertisement for '메가박스' (Mega Box) cinema listing movie titles like '타짜' and showtimes.

Advertisement for '엔터시네마' (Enter Cinema) listing movies like '잘살아보세' and showtimes.

Advertisement for '컬롬버스시네마' (Columbus Cinema) listing movies like '가문의 부활' and showtimes.

Advertisement for '컬롬버스시네마 해남점' (Columbus Cinema Haenam Branch) listing movies and showtimes.

Advertisement for '라디오스타' (Radio Star) TV show featuring hosts and guests.

Large advertisement for '드림특수방수제' (Dream Special Waterproofing) by Dream Korea, highlighting its benefits and listing nationwide distributors.

Large advertisement for '제주여행 74,000원' (Jeju Trip 74,000 Won) package deal, including travel detail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Jeju Mt. Tourism.